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6호 【루계 제25865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간고하고도 벅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력사에서 다섯번째로 되는 당세포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기층조직중심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을 밝히시고 새로운 비폭력 기층조직들을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심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늘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성과 위력, 당의 로선과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당세포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은 곧 조선로동당의 권위를 보장하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전투력을 높이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교시하곤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과 기층조직중심사상을 높이 받들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세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위원장을, 전체 당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예지와 결속한 령도력으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필승불패의 전투적참모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향을 삼가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공화국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정치구도와 전략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정세와



광범한 군중속에 살아 움직이는 수십만의 당세포들과 세포위원장들을 보고있으며 커다란 고무적함을 얻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을 책임지고 오직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목숨까지 바쳐가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당세포위원장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그어느때보다도 격동적이며 양양한 자세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판철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집행을 위한 파급한 공격전을 전개하여 가져오는 미래의 침략과 제재 압살책동을 짓무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 전진을 촉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현 시기 내세운 중대하고도 절박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당세포위원장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을 옮겨 분석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들을 당의 사상과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충성의 대오로 만들어 이 사업에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회에는 군수공업부문과 인민경제 선봉부문,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 단위들, 무력기관 산하단위들에서 사임하는 세포위원장들, 부문당 위원장들, 각급 당위원회 책임임근들, 당임근들이 참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당세포를 강화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바탕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우리를 둘러싼 제반 국제정치정세를 통보하시고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의 전진로상에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도전들이 앞에 가로놓이고있지만 이를 막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정세하에서 오히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을 확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성된 현정세가 우리를 보다 더 단결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화, 자립화를 내놓고 자력으로 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심을 가지고 앞날을 확관하며 웃으며 투쟁해 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이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주체판적조건들과 정세전망에 대하여 종합분석하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혁명의 전면적부흥을 가속하기 위한 거창하고도 심세한

방략과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제 인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펼쳐어나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커다란 전진과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책동에 의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사회주의 자립경제토대와 자금자족의 경제구조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문화혁명의 불길은 새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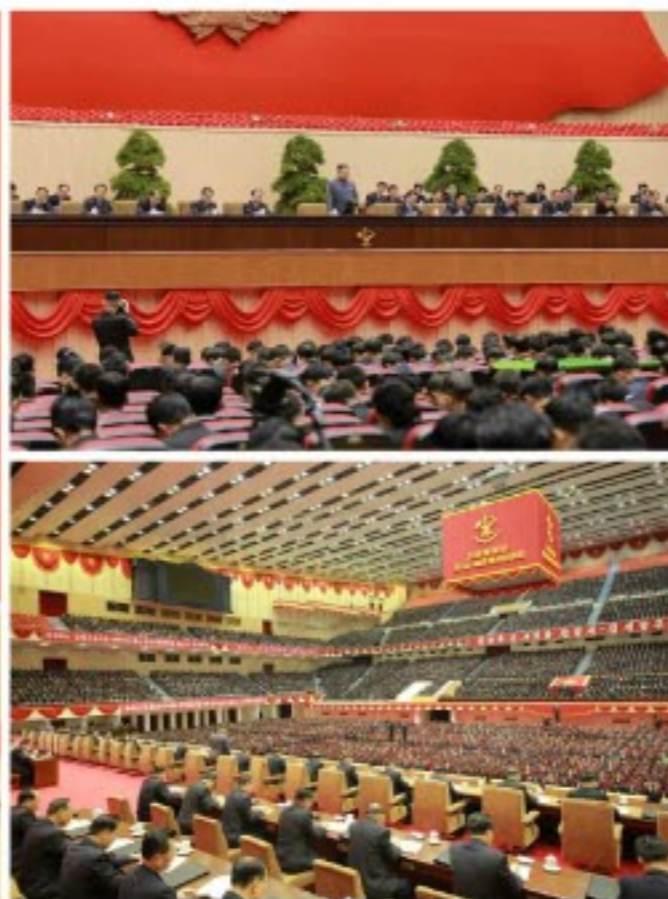
올리에도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서 연간계획을 완수한 단위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알곡과 파일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힘과 기술로 새형의 화물자동차와 트랙터, 농기계시제품들을 생산하고 많은 경공업공정들이 개건 현대화되며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이 생산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국가와 인민의 생존자제를 위협하는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순간의 침체도 없이 줄기차게 추진된것은 역사의 기적이며 이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반석같이 다져졌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물에는 수천만 대중을 당중앙위원회와 협력으로 이어주고 당정책판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킨 당세포들과 세포위원장들의 충성과 헌신의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일련달일 당만을 따르며 산악 같이 일떠서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에서



# 주체의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역사적인 대회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막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12월 2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도적전위가 비상이 높아지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무적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되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당세포들은 우리 당을 떠받드는 역적불변의 초석으로 튼튼히 다져져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며 주체혁명의 새시대 총진군길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왔다.

역사에 류례없는 역경속에서도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만방에 힘있게 펼쳐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당세포들을 강화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순한필진, 당정책옹위전에 총력기시킨 우리 당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번 대회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후 지난 5년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

과와 결합들을 분석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들을 당의 사상과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총정의 대오로 만들며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를, 무력기관 산하단위들에서 사업하는 당세포위원장들, 부문당위원장들,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으로 들어서시는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엄을 받들어 우리 당을 대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또한 중앙과 도의 당책임일군들도 함께 등단하였다.

순간 대회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를 우러러 복종같은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후 지난 5년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개최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최룡해동지

최룡해동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자주의 가치, 자강력적인 주의가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복종처럼 전진해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원들의 당생활적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정책판별의 최후대인 당세포가 든든해야 당이 굳건하고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한다는것은 주체의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역사가 확증한 위대한 절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세포중시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강화의 전로를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력사적인 결정을 하시고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기층조직건설의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신것은 당세포강화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었다.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전우로 준비시키는데 대한 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정으로 이어주는 열매이 될데 대한 사상, 세도와 판로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이론들은 당세포사업에서 사용되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전당강화의 지름길은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있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천명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당에 당세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주시고 각급 당조직들이 당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세포위원장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두지휘 하시는 나남에 몸소 당세포사업을 로회하시고 일 잘하는 당세포위원장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세심한 명도는 당세포위원장이 당정책판별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당세포위원장이 올린 소박한 편지들 보아주시고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와 당원들의 심장속에 불씨를 지펴주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권필도 보내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서사시는 당중앙과 당세포가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명도자와 전사가 혼연일체되어 무고있는 우리 당에서만 있을수 있는 승엄한 화폭이다.

그는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통쾌한 승전포성이 편이 울려 퍼지도록 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탁월한 명도와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당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룡해동지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당세포위원장의 열과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우리 당을 권승불패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있는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즐기치게 전진시켜온 긍지 높은 나날이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

을 가져온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당의 당세포들이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총정과 불타는 애국심,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혁명가들로 키우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들이 위대성교양에 첫째가는 힘을 넣음으로써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승엄하게 꾸리고 전국각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통상과 대양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서 당원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총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휘되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장군 묵숨으로 사수하라》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직분의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행동에 당당히 맞서 싸워 300여일만에 기이이 당의 품으로 돌아온 무적침배 선원들을 비롯하여 오직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수천수만의 참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부사들이 배출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제시여 만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막판을 안고 라선시와 함북도 북부피해부구전투에서 기적적승리를 쟁취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호응하여 수백만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련하여나선 강용한 모습은 당의 혁명사상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분출이었다고 말하였다.

# 주체의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역사적인 대회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막



### 2 면에서 계속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  
들을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명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수령길사용위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켜나가는  
사상교양의 거점, 조직적단련의  
용광로로 든든히 꾸려진것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세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주체의 인민관  
을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  
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이  
어놓은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세포들에서 일군들과 당원  
들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  
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하여  
발이 났도록 뛰고 또 뛰는 참전  
충부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당생  
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는데 대하  
여 언급하였다.

전당의 당세포들이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  
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고 그  
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들  
을 어머니심정으로 풀어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받들어 애써 노력함으로써 당원  
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헌신하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덕천탄광 사동경 고속도굴진  
소대 1당세포에서 20여명의 굴  
진공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  
애로들 진심으로 풀어주어 소대  
들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집단  
으로 만들었으며 서평양기관차대  
운전대대 1중대 당세포에서는  
부모없는 청년을 친부모의 심성  
으로 돌봐주어 말은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한것을 비롯하  
여 수많은 당세포들이 당의  
군중선관철에서 자기의 책임  
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군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  
은 이런 당세포들이 있기에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날  
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인민대중  
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은 더욱 튼튼히 다져  
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세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사대,  
적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세포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참신하게, 박력있게  
벌려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  
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방과학, 군수공업부문의  
당세포들에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애국충정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병진조선관철을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나가도  
록 고무추동함으로써 《9월의  
열혈투쟁》에 이어 온 행성을 진  
감시킨 《11월대사변》을 안아  
오는것으로써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과 미래과학  
자거리, 머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복무전의  
전구들마다에서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갱생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  
되고 강원도정신과 같은 시대정  
신, 새로운 시대속도들이 창조된  
데는 당세포들의 전투적역할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말하였다.

점덕광업련합기업소 굴광광산  
4, 5경 고정관영용소대 당세포  
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4직장  
조사1당세포, 기관차제육탄 력기  
당세포를 비롯한 수많은 당세포  
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따라앞서  
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경쟁  
열풍,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  
게 타오르게 한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거창한 창조대전속에서 다지  
고다져진 우리 당세포들의 전투  
력은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의 전대미문의 제제압살피동  
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경제강국을 건설  
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에서 최대  
로 발휘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세포들이 조직사상적  
으로 더욱 강화되고 당세포위원  
장들의 역할이 높아진것은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하  
였다.

당세포들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서비스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받들고 세포안에 높은  
당조직관념에 기초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며 세포들  
조직성과 규율성, 전투력이 강한  
적소리나는 총정의 대오로 만들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나날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총성  
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 대열이 늘어났으며 우리 당의  
초석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하  
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의 핵심,  
당정책관철의 기수라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안고 당의 사상  
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년에 없는 무더기비로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 절세위인들  
의 초상화를 묵숨바쳐 보위하고  
희생된 최평시 송하고금중학교  
전 당세포위원장 김정활동무와  
김금수영웅의 뒤를 이어 폭탄해  
체전투에서 불굴의 영웅성과 희  
생성을 발휘한 강원도인민보안  
국 영웅폭발물처리대 전 당세포

위원장 신철민동무는 전당의  
세포위원장들이 따라배워야 할  
시대의 전형이고 본보기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나라의 과학기술발  
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국가  
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환경연  
구실 당세포위원장 백운호동무,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  
황금해역사랑조고항의 영예를  
창출해나가고있으며 이로공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해나가고있는  
8월25일수산사업소 《단풍1-  
05》호 당세포위원장 리원혁동  
무, 뜨거운 심장파 인간적향기를  
지니고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  
으로 더 가깝게 이어주어 사람  
들로부터 《우리 당세포위원장  
》이라고 정답게 불리우는 리홍길  
노동장 청년가공직장 압축기작  
업반 리천봉동무와 같은 미더운  
당세포위원장들이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힘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런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이  
말겨준 혁명소초들을 믿음직하  
게 지켜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위업이 승리적  
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용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당의 명도력을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  
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선결조

건으로 나서는것은 당의 기층조  
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  
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시기 당세포사업이  
당의 숭고한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부 당세포들에서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당원  
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드는데 용당한 힘을 넣지  
못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의  
핵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  
려는 확고한 결심과 사상적각오  
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낡은 방  
법과 도시적인 틀에 매달리고있  
는것은 당세포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심각한 결함들이라  
고 말하였다.

이런 대회를 통하여 당세포사  
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심각하  
게 분석총화하고 당세포의 기능  
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  
제적인 방도들을 찾음으로써 당  
의 의도대로 세포사업에서 새로  
운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오늘 우리앞에  
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세포들 총성  
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  
오로 튼튼히 꾸려 당의 명도력  
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야 할 중  
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  
였다.

### 4 면으로 계속



# 주체의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력사적인 대회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막

3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세포가 강화되면 우리 당이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은 그만큼 빨리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최룡해동지는 모든 당세포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의 기본전투단 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세포들은 당과 혁명대오의 입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대적권위를 바탕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세기되는 모든 문제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제에서 예리하게 보고 각성있게 대하며 사소한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세포안에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말씀과 지시, 당의 방침을 즉시집수, 즉시대적,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혁명적기강을 세워야 한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며 당원들속에서 높은 당조직관념에 기초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혁명가, 불굴의 투사들로 역사에 준비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배송의 령도와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입심단결이 있고 튼튼한 자립적경제체제와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

로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매일수목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이색적인 사상과 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적들의 악랄한 내부파괴작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당세포들에서는 근로단체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상당한 힘을 들여 새 세대 청년들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모든 동맹원들이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세포들의 전투적위력을 함있게 떨쳐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대중을 함있게 불러일으키는 활력있는 조직, 당에서 바라는것이라면 들우에도 꽃을 피우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천력있는 산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른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결성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세포들에서는 대중의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을 최대로 증대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력기시켜야 한다.

전원단위의 당세포들처럼 비약의 열쇠는 전적으로 자기 손에 쥐여져있다는 확고한 관철을 가지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성상화와 중산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져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불고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켜 자기 단위에서 창의고안의 명수, 없어서는 안될 고글기 능공, 로동자발명가들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병전선으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함있게 불러일으켜 국가력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전과 투철한 주

적관,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최후결전의 시각이 오면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당세포의 전투력은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력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실감깊이 간직하고 자신을 열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체득한 진정한 어머니, 높은 자질과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앞장서 이끄는 투쟁의 기수,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당세포위원장들은 자기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며 이미 충성의 세포가 된 단위들에서는 그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근거있게 진행해나감으로써 자기 단위를 만리마시의 전형단위, 본보기집단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새 세대 당세포위원장대렬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최룡해동지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골같이 모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로제2작업반 당세포위원장 최경일동지, 회령시 송학고급중학교 당세포위원장 강정철동지,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환경연구소 당세포위원장 박은호동지, 금성드라프트공장 합유연직장 당세포위원장 김혁철동지, 개신청년공원관리소 운영2작업반 당세포위원장 김창선동지, 송전선건설사업소 2건설대 1작업반 당세포위원장 김만철동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4직장 조사1당세포위원장 황금숙동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4직장 운영8작업반 당세포위원장 리광철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수리통계학과 수리통계학과 당세포위원장 신명국동지, 11월 2일공장 관리당세포위원장 장일세동지,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 고속도로차 당세포위원장 김성일동지, 청진항 화물관리대 부문당위원장 최기천동지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지난 6년간 당세포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신념의 결정체로, 당정책관철의 최후대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데 모를 막고 당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회령시 송학고급중학교 당세포에서는 교육교양의 모든 공간들을 위대성교양으로 철저히 일관시켜 교직원, 학생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뜻밖에 불이닥친 업무완 제난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상화와 영상작품들을 한몸바쳐 보위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지향시키고 철입식정치사업을 함있게 벌려 대중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로제2작업반 당세포에서는 기업소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중을 주체생활선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투쟁의 미풍이 높이 발휘되게 함으로써 해산-삼지연 넓은철길공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철강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토론내용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금성드라프트공장 합유연직장 당세포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철리마대고소기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함있게 벌리고 생산자대중을 집단적혁신으로 추동하여 새형의 80hp드라프트개발과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휘시키나갈 때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11월2일공장 관리당세포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꾼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도를 짜고들어 공장을 우리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키고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을 이바지하였다.

개신청년공원관리소 운영2작업반 당세포에서는 작업반원들에게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유체시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여 유체항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였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은 곧 수령옹위전, 당정책사수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철단들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적극 이바지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원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을 당의 사랑과 믿음을 심게 새겨안고 삶과 투쟁의 순간순간을 보답으로 이어가는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당에서 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환경연구소 당세포에서는 연구사들의 혁명적의지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새로운 첨단제품을 훌륭히 연구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리통계학과 수리통계학과 당세포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질적지혜를 적극 발달시키고 당세포위원장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받들어 군중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체를 풀어주기 위해 애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4직장 운영8작업반 당세포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당세포위원장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바본길로 이끌어주며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작업반원들에게 뜨거운 진정을 기울인다면 집단이 단합되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송전선건설사업소 2건설대 1작업반 당세포에서는 작업반원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품을 들여 인내성있게 진행하여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송전선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4직장 조사1당세포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청년들을 대담하게 믿고 적극 내세워주어 비단실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가는 만리마선구자가 되게 하였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될 때 해방 당세포사업이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원만히 진행될수 있으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참담게 받들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언급되었다.

당세포가 일꾼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국토관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사업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는데 대하여 비판되었다.

토론자들은 결함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당세포가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않고 당초일꾼들이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당성단편을 소홀히 한다면 당정책관철을 지체하는 제동기가 될수 있다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을 우리 당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으로, 당정책관철의 걸사대로 만들거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올 불굴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정보단









